

최이숙(동아대)

김수아 선생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디지털 성착취 보도와 관련하여 생각해야 할 쟁점들을 잘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원고 읽으면서 또 그 안에 담긴 선생님의 고민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1. 성범죄 보도와 관련해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성인지적 감수성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성범죄 보도는 성폭력이 불평등한 젠더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 폭력임을 인식할 것,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슈에 다가설 것을 말합니다. 많이 거론된 부분이지만, 저는 다시 한 번 피해자 관점의 보도란 과연 무엇일까?를 질문합니다. 이는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 그리고 이들이 생존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의 보도가 이뤄져야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비단 이제까지 우리 언론이 해왔듯이 사건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서술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보도의 과정에서, 내가 이 사건의 피해자라면 이 기사를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할까라는 점들을 질문하면서 기사가 생산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피해자 관점에서의 사건 해석이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생존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색하는 보도에 대한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연대하고 있는 단체들은 '피해자는 일상으로'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성범죄 보도에 대한 대안적인 스토리텔링을 고민할 때, 꼭 생각해야할 질문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특히 삭제가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피해자들이 생존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론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할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관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생존자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N번방 사건 보도의 경우, 앞서 말한 피해자 관점의 보도를 고민한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손내밀 수 있는 단체를 소개하고, 사건의 몇몇 국면에서(ex-조주빈 발언 장면)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 및 변호사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도하는 모습 등은 분명히 이전에 비해 진전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특히 방송국의 경우, 해당 보도 하단에 피해자 단체 전화번호를 병기한 것은 감히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도는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진 측면이 존재합니다. 가해자 중심의 보도가 문제라는 점은 가해자가 악마화라는 점 외에 피해자를 대중의 시각에서 지워버린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양진호 회장으로 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매우 두렵다 지금은 양진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혀질 것이고 나는 그의 폭력에 또 다시 노출될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인 Agenda-keeping 능력의 부족은 범죄보도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이슈에 집중하고 붓물처럼 기사가 쏟아져 나오지만, 재판 그리고 가해자의 석방이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피해가 범죄가 일어난 순간에만 발생하는 것

이 아님을 인식시키고, 피해를 당한 이들이 생존토록 하기 위해 이 사회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보도가 필요치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N번방 사건 보도에 있어 발견되는 경향 중 하나는 이 활동을 해온 활동가들을 영웅시하는 경향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분들이 안 계셨다면, 그 실체가 드러나지도 않았을 것이기에 언론에서 충분히 주목할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국가가 입법기관이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는 상대적으로 잘 다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부, 입법, 사법기관이 해야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속보성으로 뉴스가 소비되는 시대에 디지털 성범죄에 성인지적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사건 보도 외에도 기획기사, 탐사 보도가 절실하기 필요합니다. 언론이 해야할 역할을 단순 사건 보도로 사건이 가십으로 소비되는 데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가, 그리고 각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질문하도록 만드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레거시 미디어들이 해야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 미디어 조직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이맘 때 알려진 기자 단톡방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그 가해자 중 기소된 사람은 단 1명이었고, 11명이 기소 유예 또는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소속된 언론사들은 정직 몇 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 말고는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이는 해당 언론인의 행동이 개인의 문제이지, 이들을 기자로 키운 조직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식의 인식에 머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언론사들이 여전히 수익을 위해 여성혐오적 기사, 성착취적 기사, 인권 감수성 제로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젠더 문제에 있어 언론사 내부의 자정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언론계 전반으로 돌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몇몇 언론사들 특히 미투 운동 이후 기사 내용에서 조직 구조에서 실험을 했던 언론사들을 제외한다면, 과연 한국언론이 자율규제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듭니다.

미투 운동이후 2018년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이 여가부와 협력하여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혐오표현반대 실천선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선 기자들은 해당 보도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윤리 규정은 있지만, 윤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언론인 및 언론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영국의 IPSO의 경우처럼 기자 단체 및 각 언론인 단체 내부적인 강력한 제재 및 규제 방안이 있을 때, 사실상 혐오를 유발하는 보도에 대해 더 고민할 텐데, 현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약한 제재외에는 어떠한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론의 윤리성을 고취시킬 언론계 내의 방안이 제안되지 않는다면 언론은 신뢰 받을 수 없습니다.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보도에 대한 규제 및 제재를 위한 새로운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마지막으로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착취를 예방하고 이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거시적

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결국 online 공간에서 심해지고 있는 강간문화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온라인 공간에서 어린 아이들까지 강간의 문화, 혐오의 문화를 일종의 유희로 여기면서 이를 재생산하고 있을까?

저는 한국사회에서 영유아 시절부터 어린 아이들이 online 공간에 너무 일찍 아무런 제재없이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함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제가 양육자이다 보니 아이들의 스마트폰 노출 문제에 대해서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아주 어린시절부터 아이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부모에게 방임되다시피 스마트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어린 세대 일수록 논문에서 지적하신 Online Dwelling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영유아들의 스마트폰 노출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성들을 함께 짚어주는 기획 역시 이뤄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